

말레이시아 명물 '길거리 음식', 푸드트럭으로 새단장



□ 주요내용

-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길거리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하다. 특히 페낭은 <CNN> 지역전문사이트 'CNN GO'에서 길거리 음식 천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길거리음식 문화가 현지인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인기 관광상품으로 떠오르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길거리음식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맛있고 나은 길거리 음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 이데 대해, 텡쿠 아드난 말레이시아 연방령 장관은 "이 정책은 쿠알라룸푸르에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푸드트럭 도입이유로 "노점보다 더 나은 위생환경에서 질 좋은 음식을 손님들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50곳의 노점상을 선정했으며, 사업확장 비용으로 1만 링깃(276만원)을 각 상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푸드트럭을 원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허가증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허가증은 외국인에게도 양도 및 판매등이 불가하다. 텡구 아드난 연방령 장관은 “허가증은 현지 국민들이 원활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허가증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식품시장 진출에 앞서 현지 식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말레이시아는 길거리 음식 및 야시장으로 유명한 국가이다. 일명 “마막”으로 불리어 지는데 일부 마막 매장에서는 라면, 김치 볶음면 등과 같은 한국 음식까지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대중시장에 식품을 소개코자 하는 해외 식품의 경우 길거리 음식점 문화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Malive